

사회



해상화재 진압 훈련 22일 여수 만성리 앞 바다에서 열린 해상 테러 진압훈련 도중 해양경찰이 선박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9월 모의수능도 여전히 '쉬웠다'

본수능 변별력 확보 과제

지난 1일 시행된 201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어려웠지만 지난해 수능보다는 여전히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 수능 출제방적으로 내세운 'EBS 교재 70% 연계'와 '영역별 만점자 비율 1%' 기조가 확인됐다.

의수능보다는 9월 모의수능이 약간 어려웠던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언어·수리는 '영역별 만점자 비율을 1%가 되도록 출제'한다는 교육당국의 난이도 조절 목표치보다는 여전히 만점자 비율이 높았고, 6월에 비교적 적정 난이도로 평가받은 외국어는 더 어려워지는 등 영역 간의 난이도 차이는 있었다.

또 영역별 만점자가 언어 0.06%, 수리 '가' 0.02%, 수리 '나' 0.56%, 외국어 0.21%에 그쳤던 2011학년도 수능보다는 여전히 쉬웠다. 6월보다는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표준점수 최고점도 조금 올라갔다.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1등급컷)는 언어 124점, 수리 '가' 131점, 수리 '나' 139점, 외국어 134점으로 역시 1~2점 올라갔다.

개인별 성적은 23일 통지된다. 광주 고교의 한 교사는 "6월 모의 평가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9월 평가와 겹쳐서 광주 학생들의 성적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며 "수험생은 EBS 교재 연계율이 70%대로 유지된 것을 염두에 두고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비율은 영역별 만점자가 언어 2.18%, 수리 '가' 3.34%, 수리 '나' 3.10%, 외국어 0.72%나 됐던 6월 모의수능보다는 수리 영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줄었다. 지나치게 쉬웠던 6월 모의수능보다는 수리 영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줄었다. 지나치게 쉬웠던 6월 모의수능보다는 수리 영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줄었다.

광주서부경찰은 22일 조선대학교 이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 정모(32)씨와 방모(32)씨를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조선대 이사이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A씨가 운영하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병원에 찾아가 "네가 ×××맞느냐. 똑바로 해. 좋지 않아" 등의 폭언과 함께 집기를 발로 찬 협박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정씨 등은 조선대 모 단과대 학생에게도 찾아가 이름을 확인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아버지의 친구인 조선대 한 강사가 최근 채용에 탈락하자 친구 방씨와 함께 A씨를 찾아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조선대 이사 협박 폭력배 2명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22일 조선대학교 이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 정모(32)씨와 방모(32)씨를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조선대 이사이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A씨가 운영하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병원에 찾아가 "네가 ×××맞느냐. 똑바로 해. 좋지 않아" 등의 폭언과 함께 집기를 발로 찬 협박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정씨 등은 조선대 모 단과대 학생에게도 찾아가 이름을 확인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아버지의 친구인 조선대 한 강사가 최근 채용에 탈락하자 친구 방씨와 함께 A씨를 찾아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a table of regional weather forecasts, and a 7-day weather outlook.

조선대 총장 선거 서재홍 교수 당선

398표 획득... 26일 이사회 최종 결정

조선대학교 제14대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서재홍(62·의대·사진)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조선대는 22일 대학 총합체육관(총장, 총장보, 총장비서관, 총장비서, 총장주임, 총장보좌)을 구성한 결과 서 후보가 398표, 전호중(57·의대) 후보 318표, 강동완(57·치대) 후보가 57표를 각각 얻었다고 밝혔다.

총장후보자 추천을 위한 규정에 따라 다득표자 1, 2위가 이사회에서 추천되며 오는 26일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제14대 총장 임기는 오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된다. 3번의 도전 끝에 최다득표한 서 후보는 "지혜주시신 구성원들께 감사드리며, 대학의 발전과 구성원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 회장·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조직위원 등 활발한 대외 활동도 펼쳐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담합선거 후유증 우려의 목소리 논공행상 배제 리더십 발휘해야

호남지역 거점 사립대인 조선대 총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장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과열, 혼탁, 구태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아 지역사회의 눈총을 샀다. 학문 연구와 지역 발전이라는 대학 사명에 비취볼 때, 이제 후보자는 물론 구성원들도 선거 결과에 연연치 않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지역민의 주문이다.

최다득표를 한 서재홍 후보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의 연대 끝에 득표율 1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서 후보는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되더라도 지지 후보들의 논공행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자칫 재임기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에 전직 총장들이 특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입후보자와 회동을 가졌으며, 이후 이들의 서 후보 지지 발표 나와 대학 총장 선거가 정치 구태에 버금간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이로 인해 자칫 조선대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전직 총장들에 의해 외풍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총장추천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전직 총장들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과 후보자간 담합이 이뤄진 만큼 선거결과를 받아들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26일 이사회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남지역 보건교사 2곳 중 1곳 "없다"

배치율 전국 평균 밑돌아...광주는 73%

전남지역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남은 초·중·고 838곳 중 412곳에 배치돼 배치율이 49.2%에 그쳤다. 2곳 중 1곳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셈이다. 공립은 746곳 중 368곳(49.3%)에, 사립은 91곳 중 43곳(47.3%)에 배치돼 공·사립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304곳 중 222곳에 배치돼 73%의 배치율을 보였다. 국립 3곳을 포함 공립이 231곳 중 189곳(81.8%)에, 사립은 73곳 중 33곳(45.2%)에 보건교사가 배치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1472곳 중 7500곳에 배치돼 65.4%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Korea Jintan Hearing Restoration) featuring a cartoon of a knight on a horse and text promoting hearing aids. Includes phone numbers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Gabal' (가발) hair salon, featuring a '21 Years of Gabal' anniversary promotion with a 50% discount on new products. Includes photos of staff and a map of the location.

Advertisement for 'Wedding & Reception' (웨딩·객실) at the Grand Opening of the Sangmuji Hotel Art Museum. Features a couple in wedding attire and lists various wedding services and discounts.